

미국, HFA 마진악화 “진퇴양난”

Fluorspar 가격상승 반면 HFA 공급과잉 ... 가격인상 어려워 고전

최근 HF(Hydrofluoric Acid) 원료인 Fluorspar 가격이 중국 수출감소에 힘입어 CIF US Gulf 및 Rotterdam 톤당 160-165달러로 약 20% 급등함에 따라 북미 및 서유럽 HF 생산기업들이 마진악화로 고전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Fluorspar 공급국 가운데 하나로 최근 HF 생산량을 확대함으로써 Fluorspar 수출을 축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미 및 서유럽 HF 메이커들은 HF 생산능력 과잉으로 가격을 인상하기 어렵워 마진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SRI International에 따르면, 중국의 Fluorspar 수출량은 2001년 115만톤에서 2003년 85만톤으로 감소했으며 생산능력은 1998년 8만1000톤에서 2003년 34만5000톤으로 확대됐다.

시장 관계자들은 중국이 2004년 수출을 유지하기 Fluorspar 생산을 확대하겠지만 가격도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북미 및 서유럽 HF 생산기업들은 수요둔화 및 공급과잉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북미 HF 수요는 최근 몇년 동안 둔화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새로운 Hydrofluorocarbon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Fluoropolymer 및 HCFC(Hydrochlorofluorocarbon)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미 최대의 HF 생산 및 상업판매기업인 Honeywel은 루이지애나주 Heismar 및 온타리오주 Amherstberg에서 HF 플랜트를 가동하고 있으며 DuPont은 텍사스주 La Porte에서 자가소비용으로 HF를 생산하고 있다. 또 멕시코 생산기업인 Quimica Fluors 및 Solvay Fluor Mexico도 미국에 HF를 공급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Anhydrous HF 수입가격은 1999년 이후 톤당 평균 1000원대를 나타내고 있다.

유럽 최대 HF 상업 판매기업 가운데 하나인 Bayer는 2003년 12월 원료 가격상승으로 HF 가격을 톤당 60유로(약 71달러), 약 7%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미국 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럽은 공급과잉 확대로 가격이 저조한 상태이다. 또 유럽 HCFC 시장은 중국 및 인디아 수입품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luorspar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 미국은 추가 물량을 확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이 현재 수준으로 생산량을 유지하면 남아프리카 수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남아프리카는 중국 다음으로 미국 Fluorspar 최대 수출국이며 이 외에 미국은 케냐, 몽골, 베트남, 캐나다 및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Fluorspar를 수입하고 있다.

멕시코 또한 주요 Fluorspar 공급국 가운데 하나이나 주로 비소(Arsenic) 함량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처리시설을 갖춘 Honeywell의 Amherstberg 플랜트 및 Solvay Fluor의 일리노이주 Alorton 플랜트에서만 사용하고 있다.

Solvay Fluor는 남아프리카 부근 나미비아에 Fluorspar 광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태리 Porto Marghera 및 독일 Bad Wimpfen 등 유럽 소재 HF 플랜트에 사용되는 원료의 50% 정도를 공급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4/04/20>